



삼국유사 인물학 유행(遊行)

한 국토에 두 부처가 공존할 수 있을까?

미륵·아미타불 모두 현신성불 대변

1. 한 국토 한 부처

불교 경전에는 하나의 국토에는 한 분의 부다가 설주(雪主)가 되어 있다. 하늘에 하나의 해가 떠 있는 것처럼, 나라에 하나의 통치자가 있는 것처럼, 한 국토에는 한 부다만이 주재(主宰)의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역사적 부다이자 천백역 화신인 석가모니불과 비역사적 부다이자 청정법신인 비로자나불 그리고 역사적 부다와 비역사적 부다를 아우르는 원만보신인 아미타불 또는 노사나불 등처럼 말이다. 여러 경전에서는 한 국토에는 한 부다만이 주재하고 교화하고 있다.

한편 밀교에서는 오방(五方)에다 오불(五佛)과 오지(五智)를 배대하고 있다. 금강계(金剛界)의 오불은 오지를 지니고 있어 동방 유리광 정도에 거주하는 아축불은 대원경지, 남방 보생불은 평등성지, 중앙 대일여래는 법계성지, 서방 아미타불은 묘관찰지, 북방 불광역래는 성소자지로 배대하였다. 반면 태장계의 오불은 동방의 보당불, 남방의 개부화왕불, 중앙의 대일여래, 서방의 무량수불, 북방의 천고뢰음불을 배대하였다. 이러한 배대는 입체성과 구상성이 강조된 밀교에서 특히 발견되지만 한국의 여러 경전에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테면 부다를 설주(設主)로 하는 경전과 달리 한국인의 경전인 『삼국유사』 「탐상」편 '노힐부득 달달박박' 조목에는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경설에 입각하여 한 국토에 두 부처가 존재하는 진경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그리고 현신(現身) 그대로 성도(成道)한 두 부처를 미륵불과 미타불이라 한 역시 경전의 참뜻을 신라의 신앙으로 활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상남도 진주(진주)가 배경이 되어 있는 『백월산양성성도기』(白月山兩聖成道記)는 이 지역에서 보이는 독특한 기록이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옛날 당나라 황제가 일찍이 못을 하나 파다. 매월 보른 전에 달빛이 밝으면 못 가운데 어떤 산 그림자가 하나 나타나며 사자 같은 바위가 꽃 사이로 아름답게 보였다. 황제가 화공에게 명하여 그 모습을 그리게 하고, 사신을 시켜 천하에 이와같은 산을 찾도록 하였다. 사신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백월산(白月山)을 보니 큰 사자바위가 있고, 그 바위에서 두 보름 되는 곳에 삼산(三山)이 있었다. 그 이름은 화산(火山)이며 그림을 꼭 빼닮았다. 하지만 바위가 진짜 그 바위인지를 알 수 없어 신발 한 짝을 사자바위 정상에 매달아 놓고 돌아가서 아뢰었더니 신발 한 짝도 못 속에 나타났다. 황제가 기이하게 여겨 그 산 이름을 '백월산'이라고 지었더니, 그 뒤로는 못 가운데에 산 그림자가 없어졌다."

이 산 동남쪽으로 삼천 보름 가면 선천촌

(仙川村)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에는 두 사람이 살고 있었다. 한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은 월장(月藏)이요 어머니의 이름은 미승(味勝)인 노힐부득이었다. 또 한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은 수범(修梵)이요 어머니 이름은 범마(梵摩)인 달달박박이었다. 두 사람의 풍채와 골격이 밤상치 않고 세속을 벗어난 기상이 있어 둘은 서로의 좋은 벗이 되었다. 그들은 약관의 나이에 그 마을의 동북쪽 재 너머에 있는 법적방(法積房)에 의지하여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다. 얼마 뒤 서남쪽 치산촌 법종곡(法宗谷) 승도촌(僧道村)에 옛질이 있어 수행할 만하다는 말을 듣고 함께 가서 대불전(大佛田), 소불전(小佛田)이란 두 마을에서 각각 살았다. 노힐부득은 회진암(懷眞庵) 일명 양사(壤寺)에 머물렀고, 달달박박은 유리광사(琉璃光寺)에 머물렀다. 이들은 모두 처자를 데리고 살면서 생계를 꾸릴 일로 서로 왕래하였다. 그러면서도 정신을 수양하고 속세를 떠날 생각을 잠시도 잊지 않고 세상의 덧없음을 보고 서로 말하였다.

2. 이타의 보살행과 자리의 소승독수

"기름진 밭과 풍년이 든 해에는 참으로 좋지만, 웃과 음식이 마음대로 생겨 저절로 배부르고 따뜻한 것만 못하고, 아내와 자식이 정들어 좋기는 하지만, 언지화장(蓮池華藏) 세계에서 많은 성인들과 함께 놀며 영무, 공작과 즐거워하는 것만 못하다. 하물며 불교를 배우면 부처가 되어야 하고, 참된 마음을 닦으면 진리를 얻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이미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으니 마땅히 이 굴레를 벗어버리고 위 없는[無上]의 도를 이루어야 할 것인데 어찌 세속[風塵]에 골몰하여 속물[俗韻]과 다름없이 지내려 하는가?" 드디어 인간 세상을 하직하고 깊은 산 속에 숨어들었다. 어느 날 밤 꿈에 백호의 빛[白毫光]이 서쪽에서 비쳐 오는데, 그 빛 속에서 금빛 팔이 내려와 두 사람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꿈을 깨니 두 사람의 꿈이 어김없이 꼭 같았다. 둘은 오래도록 감탄하다가 마침내 백월산 무등곡(無等谷)에 들어갔는데 박박 스님은 북쪽 사자바위 터를 잡고 8차 크기로 판자집을 짓고서 판방(飯房)이라 하였고, 부득스님은 동쪽 바위 및 물가에 방장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뇌장(廩房)이라고 하였다. 각각 암자에 살면서 부득은 부지런히 미륵불을 구하고, 박박은 아미타불을 염송하였다. 3년이 못되는 경룡(景龍) 3년 기유년(709) 4월 8일, 성덕왕 8년이었다. 해질 무렵에 20세쯤 되어 보이고 용모가 매우 아름답다며 난초와 사향 냄새를 풍기는 한 남자가 북쪽 암자에 이르러 유숙하기를 청하며 노래를 불렀다. "길 가는 나그네 해지니 천 산이 저물고/ 길은 끊어지고 마을은 멀어 사람이 적막하네/ 오늘 밤 이 암자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설화가 전해지는 백월산성. 신라인들은 현신성도의 아미타불, 현신성불의 미륵불을 신봉했다.

박박 스님은 아미타불염송

부득 스님은 미륵불 구해

금빛미륵 열룩아미타불 변해

미륵은 현신 개혁의 의지 표출

에 머물고자 하오니/ 자비하신 스님은 성가시다 하지 마오."

박박은 말하였다. "절이란 청정을 지키는 것을 근본으로 삼으니 당신이 가까이 할 곳이 못됩니다. 이곳에 머물지 말고 빨리 가시오." 박박은 문을 닫고 들어갔다. 남자가 다시 남암으로 가서 또 여전히 청하자 부득이 말하였다. "그대는 이 밤에 어디서 오시었소?" 남자가 대답하였다. "저의 고요함이 태허와 한 몸이 되어있는데 어찌 오고 감이 있으리까? 다만 어진 어른께서 뜻이 심중하시고 덕행이 견고하다는 말을 듣고 장차 보리(菩提)를 성취하시는데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하고는 계승 하나를 주었다. "해는 지고 점점한 산길에/ 가도 가도 인가가 보이지 않네/ 소나무와 대나무의 그늘만 더더욱 깊고/ 시냇물 소리 오히려 새로워라/ 잘 곳을 정함은 길을 잃는 때문이 아니라/ 높으신 스님을 인도하려 함이네/ 바라건대 내 청만 들어 주시고/ 길손이 누구인지 묻지는 마오."

부득은 듣고 놀라면서 말하였다. "이곳

은 부녀자와 함께 있을 곳이 아니지만, 중생의 뜻에 따르는 것도 보살행(菩薩行)의 하나인데 하물며 깊은 산 어두운 밤에 소홀히 할 수 있겠소?" 그리고는 암자로 남자를 맞아들였다. 밤이 되자 부득은 더욱 마음을 맑게 하며 몸가짐을 가다듬어 희미한 등을 벽에 걸어 놓고 염송에만 전념하였다. 밤이 끝나갈 무렵 남자가 불러 말하였다. "내가 불행하게도 방금 해산할 기미가 있으니, 스님께서서는 거적(짚자리)이나 마련해 주세요." 부득은 가엾게 여겨 거역하지 않고 촛불을 은은히 밝혀 도와 주었다. 남자가 해산을 하고는 또 목욕하기를 청하니 노힐부득은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가엾은 생각이 더하여 목욕통을 준비하여 남자를 통 안에 앉히고 더운 물을 목욕을 시켰다. 목욕 통 속의 물에서 향기가 나며 물이 금빛으로 변하였다.

3. 미륵과 미타의 공존

부득이 크게 놀라자 남자가 말하였다. "스님도 이 물에 목욕하십시오." 마치 못해 부득은 역시로 그 말에 따르니 홀연히 정신이 상쾌해지며 피부가 모두 금빛이 되고 그 옆에는 홀연히 연화대가 하나 생겼다. 남자가 "거기에 앉으라"고 하면서 말을 이었다. "나는 관세음보살인데 대사를 도와 대보리(大菩提)를 이루게 하려고 이곳에 왔노라." 그런 뒤에 남자는 간데 없게 사라졌다. 한편 박박은 "노힐부득이 오는 밤에 파계했으리라" 생각하고 비웃어 주리

라 하였다. 그리고는 부득의 처소로 와서 보자 노힐부득이 연화대좌 위에 앉아 미륵불이 되어 환한 빛을 뿜으며 몸은 금빛으로 채색되어 있었다. 박박은 자기도 모르게 머리를 조아리고 예를 드리면서 말하였다. "어떻게 하여 이렇게 되었습니까?" 노힐이 그 사연을 자세히 말해 주었다. "나는 마음이 막혀서 요행이 성인을 만나고도 오히려 예우하지 못했는데 대덕은 지극히 현명하시어 나보다 먼저 성불하였으니 바라건대 옛날 연분을 잊지 말고 도와 주소서."

노힐부득이 말하였다. "통에 아직 물이 남아 있으니 목욕할 수 있을 것이오." 달달박박이 목욕을 하니 부득처럼 무량수존상을 이루어 두 존상이 엄연하게 마주 대하게 되었다. 산 아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투어 와서 둘러보며 감탄하였다. "참으로 드물고 드문 일이다." 두 성인이 그들을 위하여 설법하고 나서 전신은 구름을 타고 가 버렸다. 천보 14년 을미년(755)에 신라 경덕왕이 즉위하여 이 소문을 듣고 정유년(747)에 사신을 보내 큰 절을 세우게 하고 백월산남사(白月山南寺)라고 편액을 내렸다. 광덕 2년 갑진년(764) 7월 15일 예야 절이 낙성되자 다시 미륵존상을 조성하여 금당에 봉안하고 현판을 현신성도미륵지전(現身成道彌勒之殿)이라 하고, 또 아미타 불상을 금당에 봉안하였으니 목욕통에 남아있던 물이 부족하여 끓고투 바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아미타불상 역시 열룩진자국이 있었다. 그리고 현신성도무량수전

(現身成道無量壽殿)이라고 하였다.

신라인들은 신라를 불국도로 만들기 위해 미륵신화를 이 땅에 내려오게 하였다. 그리고 국민들 역시 그렇게 믿고 실천하였다. 이 「백월산양성성도기」는 신라인들의 현실정도관과 현신성불관이 깊이 투영되어 있다. 여기에서 '달'이 '불법'이라면 '사자'는 '부처'를 상징하고 있다. 중국에 불법이 융성하여 달처럼 밝으면 부처의 상징인 사자가 그 못에 비추듯이 본질인 부처는 신라에 있고 그 그림자인 달빛은 중국에 있음을 암시함으로써 불국도인 신라가 중국에 견주어 우월하며 자주성이 더 강함을 암시하고 있다. 여기서 '신' [履]은 '부처의 발자국'을 상징하고 있다. 원시불교 이래 '불적'(佛跡)은 승배의 대상으로 하였고 신발만을 남기고 떠나갔다는 달마대사의 설화도 여기에 연유하고 있다. 두 사람의 부모 이름이 불경의 미타와 미륵의 부모 이름과 같은 것은 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미타와 미륵불로 성도할 수 있는 부모에게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부처를 이루게 한 근원이 되었던 '불전'(佛田)은 성불(成佛)의 선후 개념으로 부득이 살던 대불전과 박박이 살던 소불전으로 부른 것이다.

'금색의 팔'은 '부다의 팔'을 상징하며, '이마를 쓰다듬은 것'은 부처가 되기를 약속하는 이마에 수기를 주는 의식[摩頂授記]을 뜻한다.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무등'(無等)은 부다의 존호 혹은 큰 깨달음을 상징하는 '무등정각'(無等正覺)을 의미한다. 미륵불은 현재는 보살이지만 도솔천의 천인을 위하여 설법하다가 56억 7천만년 뒤에 이 세상에 하생하여 성불하고 설법할 부처를 뜻한다. 아미타불은 현재 서방정토인 극락세계에서 대중을 위해 설법하고 있는 부처이다. 여기서 부득이 먼저 부처가 된 것은 당시 신라인들이 미륵신앙을 더 신봉했음을 암시한다. 또 금당에 미륵상을 모시고 강당에 아미타상을 모신 것은 신라인들의 정도관을 반영한다. 부득과 박박이 미륵과 미타가 되어 구름을 타고 갔다고 다투어 와서 둘러보며 감탄하였다. "참으로 드물고 드문 일이다." 두 성인이 그들을 위하여 설법하고 나서 전신은 구름을 타고 가 버렸다. 천보 14년 을미년(755)에 신라 경덕왕이 즉위하여 이 소문을 듣고 정유년(747)에 사신을 보내 큰 절을 세우게 하고 백월산남사(白月山南寺)라고 편액을 내렸다. 광덕 2년 갑진년(764) 7월 15일 예야 절이 낙성되자 다시 미륵존상을 조성하여 금당에 봉안하고 현판을 현신성도미륵지전(現身成道彌勒之殿)이라 하고, 또 아미타 불상을 금당에 봉안하였으니 목욕통에 남아있던 물이 부족하여 끓고투 바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아미타불상 역시 열룩진자국이 있었다. 그리고 현신성도무량수전

참고문헌

- 일 연, 『삼국유사, 권상(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 김영태, 『한국불교사정론』(불자사, 1992).
- 김영태, 『삼국유사의 불교신앙 연구』(신원문화사, 1979)
- 이병교,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민족사, 2005; 2007).
- 고영성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 지게 됩니다.

-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 번 질할 때 마다 한 알씩 쬐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내 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

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꿸 때 되면 염장은 멀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 염주세트키트: 108염주 (10mm) 마강염주 12개(10mm) 모주 1개(12mm) 줄삼색, 코린개, 맨드, 이부시개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혔을 염주는 준비물 중 이부시개로 해결합니다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 양이(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 줍니다.

4 수직으로 나열있는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개의 줄을 빼냅니다.

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헝겊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강염주 주로 통과시킵니다.

7 마강염주 염주를 통과 시킨 후 줄에 맨드트를 끼워서 다시 마강염주 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8 이때 맨드트와 마강염주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와 마강염주 사이는 5mm정도 남겨둡니다.

9 두 줄로 2회 앞뒤로 가볍게 매듭을 만듭니다.

10 다시 매듭을 3회 헝겊 조이면 됩니다.

11 가위로 2mm정도 남게두고 자른 후 라이터로 살짝 지지서 손으로 가볍게 눌러줍니다.

12 108염주 완성
심원인덕터출판
20-2011-0003692
20-2011-0004171
20-2011-0005656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등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다담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